

01. ③ 02. ① 03. ④ 04. ③ 05. ① 06. ⑤ 07. ④ 08. ② 09. ③ 10. ⑤  
 11. ① 12. ⑤ 13. ② 14. ④ 15. ① 16. ① 17. ② 18. ⑤ 19. ④ 20. ②  
 21. ⑤ 22. ② 23. ④ 24. ④ 25. ① 26. ④ 27. ③ 28. ③ 29. ⑤ 30. ⑤  
 31. ② 32. ⑤ 33. ③ 34. ③ 35. ① 36. ⑤ 37. ② 38. ④ 39. ③ 40. ①  
 41. ⑤ 42. ① 43. ③ 44. ③ 45. ④ 46. ② 47. ④ 48. ② 49. ④ 50. ②

## [1-5] 듣기

## 1. 이제 음악과 함께 강연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참 듣기 좋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국악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예, 지금 들으신 이 음악은 젊은 국악인들이 전통 음악을 일반 대중들이 즐겨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창작곡입니다. 이 국악인들은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시도했는데요, 먼저 전통 악기를 서양 악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연주하지 않았던 이질적인 악기들의 합주를 시도했는데요, 처음에는 악기 조율 체계부터 달라서 같은 음을 내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가야금, 피리, 대금 등과 같은 전통 악기에 기타, 신시사이저 등의 서양 악기를 더해서, 전통 악기만을 사용하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국악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 이들의 시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재즈, 가요, 록 음악 등 여러 장르와의 융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젊은 국악인들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질적인 악기들의 협연과 여러 장르와의 융합을 과감히 시도해서 국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낸 것이죠. 이 젊은 국악인들에게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요?

## 1.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를 활용한 교훈의 추리)

**정답해설** : 제시된 강연에서는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한 젊은 국악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이질적인 악기들의 합주를 시도’했으며, ‘새로운 방식의 국악’을 위해 ‘여러 장르와의 융합을 과감히 시도’했다. 따라서 이 강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으로는 젊은 국악인들이 보여 준 ‘실험 정신’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 2. 이번에는 방송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교양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한글의 서체에 대해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 수(남):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여): 요즘 한글 서체에 관심이 높은데요, 다양한 한글 서체의 뿌리가 되는 서체는 무엇인가요?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교 수(남): 예, 한글 서체의 뿌리는 문자를 창제할 당시의 모습을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체입니다. 이 서체는 직선과 점 그리고 원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시죠. ‘사름’이란 글자와 ‘과’ 자를 볼까요? 모서리가 각이 진 직선과 동그란 점 보이시죠? ‘사’ 자와 ‘과’ 자는 모음 ‘ㅣ’와 같은 세로선이나 모음 ‘ㅡ’와 같은 가로선에 동그란 점이 결합되어 있죠. 또 ‘사름’의 ‘름’ 자에서처럼 단독으로 쓰인 동그란 점도 있습니다.

진행자(여): 예, 그런데 붓으로 각이 진 직선이나 동그란 점을 나타내기는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교 수(남): 맞습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한글 서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월인석보』에 벌써 그 변화가 보이는데요, 여러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음에 쓰인 동그란 점에서 나타납니다. 이 점은 ‘ㅡ’나 ‘ㅣ’와 결합할 때 동그란 점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짧은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례본의 ‘사’ 자와 ‘과’ 자의 동그란 점들이 모두 짧은 선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진행자(여): 아, 그렇군요. 그럼 ‘사름’의 ‘름’ 자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쓰인 점의 경우는 어떤가요?

교 수(남): 예, 그 경우 역시 쓰기에 편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동그란 점이 붓으로 눌러 찍은 것처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 2. 추론적 사고(핵심 정보의 추리)

**정답해설** : 방송의 주된 내용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최초의 서체가 『월인석보』에 이르러 변화를 겪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모음에 쓰인 동그란 점’에서 나타나는데, ‘사’ 자와 ‘과’ 자의 동그란 점들은 모두 짧은 선으로 바뀌게 되고, ‘름’ 자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쓰인 점들은 ‘눌러 찍은 것처럼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①의 경우, ‘사’ 자와 ‘과’ 자가 모두 짧은 선으로 나타났고, ‘름’ 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 모양으로 나타났으므로, 이것이 『월인석보』에 나타났을 동그란 점의 서체 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③ ‘사’ 자의 동그란 점이 짧은 선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과’ 자의 동그란 점이 짧은 선으로 바뀌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3. 이번에는 학생의 발표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시계인 원자시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원자시계는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합니다. 똑딱거리는 시계추의 움직임을 세어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지요. 원자의 진동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이용하는 국제 원자시는 30만 년에 1초 정도밖에 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한편 일상생활에서의 하루 24시간은 지구 자전 주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 주기는 달의 인력 등에 의해 아주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원자시계로 측정되는 24시간과 지구의 자전 주기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뜻인데요, 이 차이가 누적된다면 먼 미래에 아직 해는 뜨지도 않았는데 원자시계는 정오를 가리키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시계의 시각에 때때로 1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지구 자전 주기와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그 1초를 윤초라고 합니다. 그 방법은 예를 들면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가 된 후, 1초가 아니라 2초가 지난 뒤에 24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원자시가 도입된 1972년 이후 약 20여 차례 윤초가 삽입되었다고 합니다.

### 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학생의 발표에서 ‘원자시계로 측정되는 24시간과 지구의 자전 주기 사이에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였으므로, ④의 ‘지구의 자전 주기와 원자시계의 24시간은 정확히 일치한다’는 발표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장 정밀한 시계인 원자시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원자시계는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 ‘시계추의 움직임을 세어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등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원자의 진동은 외부 조건의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⑤ ‘1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지구 자전 주기와의 차이를 조정’, ‘그 1초를 윤초라고 합니다’ 등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4~5] 이번에는 라디오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청소년 국제 교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요, 정책 담당자 분과 함께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담당자(남): 네. 청소년 국제 교류란 청소년들이 외국과 인적, 문화적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정책의 목적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진행자(여): 네. 그런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국제 교류를 한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담당자(남): 여기서 공동체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청소년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과 참여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진행자(여): 아, 그렇군요. 그러면 교류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담당자(남): 고등학생들의 국제 학술 교류 행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상대국을 방문해 학술 교류뿐 아니라 홈스테이도 하고 현지 학교생활도 경험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로 성장해 가는 것이지요.

진행자(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취약 계층 청소년들에게는 잘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자(남): 네, 저희도 그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약 계층 청소년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물적, 인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행자(여):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혹시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담당자(남): 사실, 청소년 국제 교류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은 대상, 장소 등, 상황이 다양한데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해 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교류 활동의 성과를 높이는 데 한계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진행자(여): 네,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서 청소년 국제 교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사실적 사고(개괄적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라디오 대담에 참석한 정책 담당자가 정책의 준비, 입안, 발표, 집행 등의 정책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③ ‘정책의 추진 절차’는 이 대담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정책의 목적은 ~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에 ‘정책의 추진 목적’이 언급되어 있다. ② ‘고등학생들의 ~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에 ‘정책의 추진 사례’가 언급되어 있다. ④ ‘저희도 그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에 ‘정책에서 보완할 점’이 언급되어 있다. ⑤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후 부분에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언급되어 있다.

#### 5.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라디오 대담의 진행자는 ‘정책에 대해 ~ 소개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등에서와 같이, 궁금한 점을 제시하며 정책 담당자의 추가 설명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진행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기(②),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기(③), 논점을 환기시키기(④), 동일한 질문을 되풀이하기(⑤)와 같은 말하기 방식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 [6-12] 쓰기, 어휘·어법

## 6. 추론적 사고(내용 생성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쇠뿔으로 (목재를) 결합하는 방법’과 ‘짜 맞춤 기법’의 차이를 비교한 내용에서 ‘조직의 화합’에 관한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의 내용은 ‘짜 맞춤 기법을 통해 튼튼한 작품이 완성’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짜 맞춤 기법’의 장점은 목재 자체의 단단함이 아니라 재료의 결합 방식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관계 형성이나 합의를 강조하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 내용은 적절하게 유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 ‘쇠뿔으로 결합하는 방법’에서 ‘외부의 개입’을, ‘쉽고 간단’에서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에서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를 유추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와 ‘착안점’의 내용을 참고할 때 적절한 유추이다.

② ㉡의 ‘짜 맞춤 기법’은 ‘서로 모양을 맞추는’ 작업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에서, ‘내부의 합의’는 ‘견해를 주고받는’ 과정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고 있다.

③ ㉡의 ‘한번 결합된 목재들’은 ‘튼튼하게 맞물린다’는 내용에서, ‘내부의 합의를 이루어 낸 조직’은 ‘강한 결속력’을 갖는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고 있다.

④ ㉡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이 있다는 내용에서,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합의 방식’이 있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유추해 내고 있다.

## 7. 비판적 사고(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나)의 자료는, 누수 현상의 원인이 대부분 노후 수도관의 부식 때문이며, 기존의 탐지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다. (다)의 자료는, 센서를 부착하여 누수를 즉시 탐지하는 새로운 누수 탐지 기술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④에 제시된 방안에는, 수도관에 센서를 일정하게 부착하지 않고 누수 지점에 센서를 부착한다고 한 점, 수도관 부식으로 인한 누수 지점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의 부식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나)와 (다)의 자료를 잘못 해석하여 이끌어 낸 내용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수돗물 누수 현황과 노후 수도관 비율’은 (가)의 자료에 소개되어 있고, ‘누수율 감소 대책’의 필요성은 (나)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② ‘현재의 누수 탐지 방법’이 갖는 ‘한계’는 (나)의 자료에 제시되어 있다. ③ ‘새로운 기술의 원리’와 이를 통한 누수 방지의 가능성은 (다)의 ‘진동의 형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부착하여 탐지한다는 내용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가)에는 수도관 누수의 현황이, (나)에는 기존 탐지 방식의 한계가, (다)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다루고 있으므로, 세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수도관 교체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누수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8. 비판적 사고(개요의 수정 및 구체화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I-2(주민들의 참여율 저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②에서는 '(나) III(생활 체육 활성화 방안)'에 '생활 체육 참여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율 제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을 추가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I-1(~주민들의 무관심)'은 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나)의 'II(생활 체육 활성화의 장애 요인)'의 하위 항목에 포함시키기에 적절하다. ③ (가) 'II(생활 체육 활동의 중요성)'의 하위 항목들은 '(나) I(생활 체육의 필요성)'에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④ 예상 독자인 지방 자치 단체의 관계자를 고려하여 '(나) III-2(다양한 생활 체육 프로그램 개발)'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⑤ 정책 수립과 지원 요청이라는 이 글의 목적을 고려한다면,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IV'를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 도모'가 아닌 '정책 수립과 지원 촉구'로 분명하게 강조하여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9. 비판적 사고(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비판하기)

**정답해설** : ㉠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신입 회원이 기타를 마련하기 어려울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의 자리에는 ③의 '악보를 읽을 줄 모르시나요?'보다는 '기타를 마련하지 못할까 염려되시나요?' 같은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소리샘'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자, '소리샘'이 어떤 동아리인지를 설명하는 다음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므로, '샘이므로'보다는 '샘이라는 뜻으로'가 적절하다. ④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문단에서 문단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동아리의 활동 소개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셋째 문단을 둘째 문단과 맞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10. 창의적 사고(조건에 따른 표현)

**정답해설** : '마음의 평안'을 느껴 보라고 권유한 부분은 첫째 조건(기타 연주가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족하고 있고, '두 가지의 기쁨을 주는 동아리는 '소리샘'뿐'은 둘째 조건(다른 동아리와의 차이점)을 충족하고 있으며, '나를 알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회와 소통'해 보라는 것은 셋째 조건(점층적 표현)을 충족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둘째 조건만 충족하고 있다. ② 셋째 조건만 충족하고 있다. ③ 첫째 조건('즐거움')만 충족하고 있다. 둘째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다른 동아리처럼'), 셋째 조건의 경우, 점층적 표현 '오늘', '내일', ' 먼 미래'가 쓰이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글을 마무리하고 있지는 않다. ④ 첫째 조건('외롭고 우울한', '알 수 없는 힘')과 셋째 조건('동아리방을 넘어 학교 전체에')을 충족하고 있다.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11. 어휘·어법(이형태)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형태’는 의미는 서로 같고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모양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①의 ‘에’와 ‘에서’는 의미가 서로 다르므로 이형태로 볼 수 없다. ‘에’는 앞말에 붙어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며, ‘에서’는 앞말에 붙어 출발점의 뜻을 갖게 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로/으로’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로’, 모음으로 끝날 때는 ‘로’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③ ‘나/이나’는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등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나’, 모음으로 끝날 때는 ‘나’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④ ‘면/으면’은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는 ‘으면’, 모음으로 끝날 때는 ‘면’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⑤ ‘아라/어라’는 해라할 자리에 쓰여,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어간의 끝이 ‘ㅏ, ㅑ’일 때는 ‘-아라’로, 어간의 끝이 그 외의 모음으로 끝날 때는 ‘-어라’로 나타나는 이형태 관계에 있다.

### 12. 어휘·어법(반의어)

**정답해설** : <보기>의 ‘시계가 서다/가다’, ‘서서/앉아서 보다’에서처럼, 다의어를 반의어로 바꾸어 쓸 때는 다의어의 여러 의미 중 해당 의미에 대응하는 반의어를 선택해야 한다. (가)에 들어갈 예문은 반의어 ‘넣다’와 짝을 이루는 ‘빼다’가 쓰인 ①(‘바람을 빼다/넣다’), ③(‘손을 빼다/넣다’), ⑤(‘경기에서 그를 빼다/넣다’)가 적절하다. 그런데 ①, ③, ⑤에서 (나)에 들어갈 말로 제시된 것 가운데, ‘적금을 빼다’의 ‘빼다’와 반의관계를 이루는 것은 ‘(적금을) 들다’뿐이다. **정답 ⑤**

### [13-16] 고전 소설 - 작자미상, ‘금방울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남주인공 해룡과 여주인공 금령이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혼인을 함으로써 전생의 인연을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여주인공 금령의 적극적인 활동과 애정 성취는 당시 여성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귀 획득과 신분 상승은 권력에서 소외된 피지배 계층 독자들의 의식을 반영한 것이며, 주인공의 고난과 시련은 이런 독자들의 고통 받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금방울전’과 유사한 작품으로 ‘김원전’이 있는데, ‘김원전’의 김원도 해룡과 같이 요괴를 죽이고 공주를 구출한다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 작품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장면은 막 씨가 금령을 낳고 처음에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결국 금령에 정이 들게 되는 부분과, 요상한 금령을 제압하고자 했던 장 공이 금령의 신통함 앞에서 의지를 접자 금령이 보은초로 장 공의 부인을 살리는 부분에 해당한다. 금령의 신이한 능력이 잘 드러나고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금령의 가치가 돋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시련을 극복하고 혼사를 성취하는 금방울(금령)의 삶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1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A]에는 장 공이 뇌양에 온 후 부인이 병을 얻어 위독했으나 금령이 보은 초를 가져다 주자 살아나게 된 사건의 경과가 서술되어 있다. 더불어 부인의 말을 통해 과거 난리 중에 아이를 잃고 한을 품은 채 오늘날까지 살아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A]는 요약적 서술과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존재하고 있다. ③ 인물 간의 갈등보다는 금령에 대한 장 공 부부의 감사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 ④ 특별한 배경 묘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등장인물은 장 공 부부와 금령, 그리고 집안사람들이며, 특별히 부정적인 인물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 14. 추론적 사고(소재, 배경의 기능)

**정답해설 :** 장 공은 금령이 가져다준 보은초로 인해 부인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 무척 기뻐한다. 부인이 회복된 후에 장 공 부부는 막 씨를 찾아가 금령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금령을 아끼며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㉞의 '집'을 막 씨와 장 공 부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그 '집'에서 막 씨와 장 공의 부인은 형제의 연을 맺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초막'은 '조그맣게 지은 초가의 막집'이라는 의미로 빈곤한 막 씨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② 막 씨가 금방울을 아궁이에 집어넣었는데, 그 곳에서 향기가 풍겨 나왔다는 것은 금방울의 신이한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다. ③ '정문'은 '충신, 효자, 열녀 들을 표창하기 위해 집 앞에 세우던 붉은 문'으로, 막 씨의 효행을 널리 알려 막 씨를 본받을 만한 인물로 칭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는 막 씨의 효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특정한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금방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었음을 의미한다.

## 15.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는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주인공 금방울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한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활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내용으로 볼 때, 막 씨가 금방울을 '손으로 누르고', '돌로 깨치는' 것은 모두 금방울을 없애려고 하는 행위로, 금방울에게는 시련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처음 금방울을 낳았을 때, 막 씨는 금방울이 해괴한 것이라고 여기며 이를 해치려고 하였다. ③ 금방울은 늘 막 씨 곁에 머물며 딸처럼 막 씨를 봉양하고 있다. ④ 제시된 행위들은 초월적인 행위들로, 금방울의 다양한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⑤ 금방울이 가져온 보은초를 통해 장 공의 부인이 살아났으므로, 금방울은 장 공 부부의 조력자라고 볼 수 있다.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16. 사실적 사고(한자 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은 ‘죽어도 잊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장 공 부인이 아이를 잃어버린 일을 뼈에 사무치도록 한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 이 상황을 잘 나타내는 한자성어는 ‘각골통한’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구사일생: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겨우 살아남. ㉢ 사필귀정: 만사는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 ㉣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연목구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듯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7-20] 현대 소설-박태원, ‘천변 풍경’

**지문해설 :** 이 소설은 청계천 변에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나열한 세태 소설로, 193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적 작품이다. 우선 이 작품은 대도시인 서울을 배경으로 도시의 문화와 삶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작가는 도시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물질주의에 경도되어 가는 도시인들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도시의 삶을 조망하고자 하는 의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작가는,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는 내용을 단편 소설 정도의 분량으로 나누어 총 50개의 절로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 작가는 소년 창수의 눈으로 도시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영화적 촬영 기법을 떠올리게 만드는 서술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제]** 1930년대 서울 중산층과 하층민의 삶과 애환

### 1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정답해설 :** 제시된 본문을 읽다보면, 삽표의 잦은 사용이 쉽게 눈에 띈다. 이 때 삽표는 여러 대상과 장면을 한꺼번에 이어서 서술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문장 안에서 삽표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행위와 장면이 연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창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의 내면을 모두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인물 간의 대화가 간혹 제시되긴 하지만, 이 대화는 도시에 처음 온 창수의 상황과 도시에 대한 창수의 심리를 보여주는 기능을 할 뿐 창수의 의식이 분열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⑤ 제시된 본문은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놀라는 창수의 모습이 부각된 부분으로,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18. 창의적 사고(관점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한다는 의미이다. 즉 작품이 창작되던 시기의 현실과 관련지어 작품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한다. 이런 관점으로 작품을 탐구하는 것은 청계천 주변의 생활상에 주목하여, 당시 서울의 세태가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려는 ⑤번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인물의 의식과 행동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이는 작품 내부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감상하는 절대주의적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 것이다. ② 작중 인물 간의 갈등에 주목하는 것도 절대주의적 관점에 속한다. ③ 작중 인물, 공간에 주목하며 작품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려는 것도 절대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④ 작중 인물의 외양, 인물의 성격 등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해석하는 것도 절대주의적 관점에 따른 것이다.

### 19. 추론적 사고(인물의 정서 및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은 창수 주위로 몰려든 서울 아이들로, 이 아이들은 창수를 시골 아이라고 놀리며 모욕감을 주고 있다. ㉡은 ‘서울 아이’들을 포함하면서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있는 아이도 포함하고 있다. 즉 창수를 비웃는 듯한 태도로 대하는 아이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은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있는 아이를 뜻한다. 그리고 ㉣은 이 소설의 내용을 이끌어가고 있는 ‘창수’이다. ‘저를 비웃은 아이는, 옆에 모여 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통해, 서울 아이들 외에 ‘이발소 창 앞에 앉아 있던 아이’도 ‘창수를 비웃은 아이’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너, 약국에, 오늘 들왔구나?”라고 말을 거는 것으로 볼 때, 그 아이는 ‘창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 20.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도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문명의 화려함과 그 이면적 풍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시 소설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시된 본문의 내용을 감상할 때, 창수가 도시의 풍경에 대해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라는 것은 대상에서 받는 느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작품 내의 흐름으로 볼 때, 창수는 도시의 현란한 모습에 신기해하고 있을 뿐, 아직 비판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리 밑’은 거지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창수가 이를 ‘행복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현란함에 휘둘려 도시의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③ 서울 아이들은 놀라지도 않는 ‘자전거 종소리’에 놀라는 창수의 모습은 도시에 존재하는 생소한 것들에 대해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창수의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한다. ④ 이발소 창 앞에 있던 아이가 건네오는 말에 대답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것은 창수의 위축된 심리를 드러내준다. ⑤ 도시의 모습에 황홀해하며 흥미를 느끼면서도 아버지를 따라 내려갔으면 하는 데서, 창수가 꿈과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이 드러난다.

### [21-24] 인문, ‘과학적 지식의 검증 방법’

**지문해설** : 이 글은 귀납 논증의 장점과 한계를 밝히고, 귀납 논증에 기초한 과학적 지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포퍼의 주장을 제시한 글이다. 귀납 논증에 의해 도출된 과학적 지식은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연역 논증을 통해 반증되는 과정을 거쳐야 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귀납 논증에 의해 도출된 과학적 지식이 성공적인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연역 논증을 통한 반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과학적 지식의 진위 여부를 논증하는 방법

### 2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귀납 논증은 전제가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고, 2문단에서는 그 이유를 귀납 논증에 의한 결론이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귀납 논증은 전제에 없는 새로운 지식의 출현 가능성이라는 논리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연역 논증은 결론에서 지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귀납 논증은 전제들이 모두 참이라고 해도 결론이 확실히 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귀납 논증은 아무리 치밀하게 관찰하여도 아직 관찰되지 않은 사실에 의해 부정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것은 귀납 논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22. 추론적 사고(견해의 추리)

**정답해설** : 2문단에서 과학은 반증에 의해 발전된다고 언급한 것과, 4문단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학적 지식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잘 견뎌 온 것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포퍼는 과학적 지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반증의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귀납 논증은 치밀한 관찰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다더라도 거짓일 수 있으므로 반증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성공적인 지식은 수많은 반증의 시도로부터 끝까지 살아남은 지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과학적 지식은 반증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므로 반증을 회피하는 것은 포퍼의 생각과 다른 견해이다. ⑤ 귀납 논증에 의해 도출되는 과학적 지식은 연역 논증에 의한 반증을 극복해야 성공적인 지식이 되는 것이므로 과학적 지식을 귀납 논증으로 정당화하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23.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ㄱ), (ㄴ)에서 (ㄷ)이 도출되는 과정은 연역 논증이고, (가)에서 (나)를 도출하는 과정은 귀납 논증이다. 그런데 1문단에서 연역 논증은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에 이미 포함된 결론을 다른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고, 귀납 논증은 지식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ㄱ), (ㄴ)에서 (ㄷ)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이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귀납 논증은 전제인 (가)가 참이어도 이와 다른 새로운 사실의 존재 여하에 따라 결론인 (나)가 거짓이 될 수 있다. ② (ㄴ)과 (가)는 관찰한 사실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경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지식은 (ㄴ)이 성립한다면 거짓임이 밝혀지지만, (가)와 같은 전제가 아무리 많이 쌓인다 해도 또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견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참이 된다는 것을 밝힐 수 없다. ⑤ ‘모든 까마귀가 검다’라는 과학적 지식은 (ㄱ)~(ㄷ)과 같은 연역 논증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다.

## 24. 어휘(문맥적 의미의 파악)

**정답해설** :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의 의미이므로 ‘지식’을 주어로 한 문맥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④는 반증들을 잘 참아낸다는 의미보다는 반증을 적극적으로 잘 ‘방어해’ 낸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용’은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씬’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② ‘실재’는 ‘실제로 존재함’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③ ‘입증’은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⑤ ‘전무’는 ‘전혀 없음’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 [25-28] 예술, ‘영화적 재현과 만화적 재현’

**지문해설** : 이 글은 만화와 영화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만화는 정지된 이미지이고, 영화의 이미지는 움직이는 이미지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만화에서의 움직임은 읽기라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다. 만화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지만 영화의 이미지는 만화처럼 자유롭게 구현하기 어렵다. 만화의 이미지는 만화가 개인의 해석을 담아 독특한 시선과 솜씨를 통해 만들어지지만, 영화의 이미지는 카메라라는 기계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기술적 익명성을 함축하고 있다. 영화의 이미지는 현실의 개입이 필연적이지만, 만화의 이미지는 외부적 현실의 개입이라는 외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주제]** 만화의 이미지와 영화의 이미지의 차이점

## 25.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확인)

**정답해설** : 이 글의 첫 단락에는 영화와 만화가 ‘움직임의 유무’로 구별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즉 만화는 공간이라는 차원만으로 제시되는 이미지인 반면 영화는 시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간을 재현한 예술 장르라는 것이다. 사진에 결여되었던 사물의 운동이 영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①은 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답이 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만화는 물리적 시간의 부재를 공간의 유연함으로 극복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영화에서는 이미지를 영사하는 속도가 일정하여 감상의 속도가 강제되지만, 만화에서는 각 칸에 대한 독자의 읽기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④ 빛이 렌즈를 통과하여 필름에 착상되는 사진적 원리에 따라 생산되는 것은 영화 이미지이다. ⑤ 실제 대상과 이미지가 인과 관계로 맺어져 있어 본질적으로 사물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이 되는 것은 영화 이미지이다.

### 26. 비판적 사고(반응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영화 이미지는 촬영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므로, 이는 수작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만화의 이미지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영화에서는 촬영한 이미지들을 컴퓨터상에서 합성하거나 그래픽 이미지를 활용하는 등 디지털 특수 효과가 활용되는데, 이는 영화가 만화처럼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장소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디지털 특수 효과는 실제 대상과 이미지가 인과 관계로 이어져 있던 영화의 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으로 인해 제작 주체의 의도가 비교적 자유롭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제시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② 물리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기존의 영화이다. ③ 촬영된 이미지를 다시 합성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⑤ ㉠은 영화에 만화적 상상력이 도입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7.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보기>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만화 표현을 통해 확인하고자 제시된 것이다. <보기>의 ㉠에 나오는 효과선은 속도감을 암시하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효과선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인물의 발 쪽에 ‘다다다’라는 글자가 크기를 점점 크게 하는 모양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움직임을 상상하게 하는 요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효과선을 지우면 속도감에 대한 효과는 줄어들겠지만, ‘다다다’로 인해 속도감을 드러내는 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만화는 각 칸에 대한 독자의 읽기 시간이 다를 수 있다. ② ‘짜당’은 언어적 정보를 통해 인물이 넘어졌음을 의미한다. 실제 인물이 넘어진 그림은 ‘인물이 넘어졌구나.’를 드러내주는 비언어적 표현이다. ④ 인물의 얼굴과 몸의 형태는 인물에 대한 작가의 해석이 담겨 있는 ‘서명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⑤ 영화의 프레임은 변화가 없지만 <보기>의 ㉠부터 ㉢의 칸들은 모양도 크기도 각각 다르다.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28. 어휘·어법(합성어의 이해)

**정답해설** : <보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은 합성어인 한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단어가 원래 서로 담고 담길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주머니’는 ‘돈 따위를 넣으려고 형겅으로 만들어 끈을 꿰어 허리에 차게 된 물건’이라는 의미므로, 이 안에는 돈이나 그와 유사한 것이 들어가게 된다. 또 ‘피’는 추상적인 것으로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국’과 ‘그릇’의 합성어로, ‘국’은 ‘그릇’에 담길 수 있다. ② ‘기름’과 ‘통’의 합성어로, ‘기름’은 ‘통’에 담길 수 있다. ④ ‘물’과 ‘병’의 합성어로, ‘물’은 ‘병’에 담길 수 있다. ⑤ ‘쌀’과 ‘가마니’의 합성어로, ‘쌀’은 ‘가마니’에 담길 수 있다.

## [29-31] 과학,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

**지문해설** : 이 글은 실제 기체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이상 기체 방정식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보정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은 분자 자체의 부피와 분자 간 상호 작용이 없는 이상 기체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기체에 적용하면 맞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매개 변수를 설정하여 실제 기체의 상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방정식은 자연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해 나가는 과학 연구의 절차를 잘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보정되는 과정

## 29.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력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기체의 분자 간 상호 작용은 거리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②는 1문단에서, ③, ④는 2문단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 30. 사실적 사고(두 대상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3문단에서 부피가  $V$ 인 용기 안에 있는 실제 기체의 분자 자체의 부피를  $b$ 라 할 때, 기체 분자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이상 기체에 비해  $b$ 만큼 줄어든  $V-b$ 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 기체가 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동 부피는 ㉡에서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과 4문단을 통해 기체 상태 방정식이 기체의 압력, 온도, 부피의 상관관계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4문단을 통해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은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이라는 단순한 모형을 정교한 모형으로 수정한 것임을 알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분자의 자체 부피를  $b$ 라고 설명했고, 4문단에서  $b$ 는 기체의 종류마다 다른 값을 가진다는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 31.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3문단에서 기체의 부피가 줄면 분자 간 거리도 줄어 인력이 커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2문단에서 일반적인 기체 상태에서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나고, 반발력은 기체 분자들이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인력을 압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에서 A와 B는 같은 온도에서 일정한 부피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하면서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작다는 것은 A가 B보다 분자 간의 거리가 짧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A가 B보다 인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반발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가 B에 비해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은 대부분 분자 간 인력에 의해 일어나는데 압력이 P1에서 0에 가까워지면 A, B 모두 부피가 증가하게 된다. 부피가 증가하게 되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분자 간의 인력이 줄어들게 되므로 분자 간 상호 작용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③ P2에서 P3 사이에서 A는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더 작고 B는 이상 기체보다 부피가 더 크다는 것을 통해 A가 B보다 반발력보다 인력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압력이 P3보다 높을 때는 이상 기체보다 A와 B 모두 그 부피가 크다는 것을 통해 A와 B 모두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압력에서 B의 부피가 더 크므로 B가 A에 비해 인력보다 반발력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볼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실제 기체의 부피는 반발력 때문에 압력을 아무리 높이더라도 이상 기체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줄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32-35] 현대시

#### (가) 김수영, 「폭포」

**지문해설** : 이 시는 ‘폭포’를 통해 시인이 지향하는 정신적 자세를 상징적으로 그린 시이다. 폭포의 의미는 ‘무서운 기색도 없이’, ‘규정할 수 없는 물결’, ‘고매한 정신’ 등의 시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떨어진다’의 반복을 통해 그 내적 속성을 부여 받는다. ‘폭포’의 본질적 속성으로서의 ‘떨어진다’는 부서짐과 직결되며, 이는 고통의 감내를 의미한다.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는 타협하지 않는 양심이며 굴종이나 무기력을 용납하지 않는 투철한 정신을 의미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곧은 소리’를 통해 이러한 폭포의 강직함과 의로움을 알 수 있으며, 다시 이 곧은 소리가 곧은 소리를 불러내는 정의의 확산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폭포는 ‘나타와 안정’을 뒤집으면서 높이와 폭을 두려워하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다. 시인은 부정적 현실 앞에서도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주눅 들지 않고, 조금의 나태함과 개인적 편안함을 용납하지 않은 채 늘 변함없이 정의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닌 존재를 그림으로써 자신과 동시대인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이다.

[주제] 부정적 현실에 맞서는 고매하고 정의로운 삶의 자세

### (나)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순례11」

**지문해설** : 이 시는 자연 현상을 통해 발견한 삶의 의미를 드러내는 시이다. 화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살아 있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흔들림으로써 튼튼해질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한다. 이때 흔들림은 인간과 관련하여서는 슬픔이나 고독, 고통 등을 의미하게 된다. ‘수만의 잎’에서 알 수 있듯이 존재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아픔과 고뇌를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 생명과 성숙을 증명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빈 들’이라는 공간에서 바람에 의해 쓸리고 흔들리는 잎을 보며 인간의 삶도 그러함을, 그리하여 이러한 고통을 피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성숙해지는 삶의 의미

### (다) 이시영, 「마음의 고향 6-초설」

**지문해설** : 이 시는 어른이 된 화자가 과거 고향을 떠나던 때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이다.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로 시작하여 ‘~에 있지 아니하고’로 끝나는 구조가 5번 반복된 후,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끝났다’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상 여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초가을의 초가지붕, 여름날의 뒤란, 추수 끝난 빈 들판을 울리는 기적 소리,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의 웃고름, 눈물 흘리던 저녁 등의 핵심 소재들을 통해 화자는 고향에 대한 상념을 떠올리고 있으며, 마지막에서 ‘어둑한 신작로 길로 나섰을 때 끝났다’를 통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

### 32. 추론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이해)

**정답해설** : (가)는 ‘폭포’, ‘떨어진다’, ‘곧은 소리’ 등의 시어와 어구를 반복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나)는 ‘살아 있는’, ‘흔들리면서’, ‘하나’ 등의 어구가 반복·변화되면서 ‘흔들림’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다)는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있지 아니하고’의 반복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환기하면서 시적 통일감을 얻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마지막 연에 ‘~있음을 피하지 마라’의 일상적 문장 순서가 뒤바뀌어 ‘피하지 마라’가 먼저 나타난 도치가 사용되었다.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끝났다’, ‘남기며’로 표현되어 ‘~남기며 끝났다’의 문장 순서가 뒤바뀐 표현이 나온다. ② (가)와 (다)에 ‘-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나 명령적 어조는 활용되지 않았다. ③ 색채의 대조는 (다)의 ‘흰 옷자락’과 ‘파르라한 웃고름’에서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만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나타난다. ④ (가), (나), (다) 모두 ‘-다’ 형태의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평서형 종결어미로 영탄법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 33.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는 (가)와 (나)의 작가인 김수영과 오규원의 시작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김수영과 오규원은 방법은 다르지만 자유를 추구하는 시인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가)의 소리는 ‘폭포’의 소리로 화자는 이를 다시 ‘곧은 소리’라고 말한다. 이는 화자가 ‘고매한 정신’으로 비유했듯이 대상의 위대성을 드러내는 것이며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을 초월한 대상이다. 한편 (나)의 ‘바람’은 잎을 흔드는 외적 요소로, 존재에게 고통과 아픔, 슬픔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존재를 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또한 존재가 이를 통해 살아 있음을 증명하며 성숙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시어이기도 하다. ③에서는 ‘소리’와 ‘바람’을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리’와 ‘바람’은 두 작가에게 있어서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과 관련된 시어로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고매한 정신’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관련된 것으로, 대상의 위대성, 숭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바람이 잎을 휩쓸고 지나가며 헤집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말한 오규원이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몸의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감각적으로 드러낸다. ④ 흔들리는 잎을 보며,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연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흔들리면서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⑤ (가)의 ‘폭포’는 숭고함과 위대성을 가진 존재로 김수영이 추구하는 이상인 자유와 관련되며, (나)의 ‘잎’은 흔들림이라는 동적 속성을 지닌 존재로 흔들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냄으로써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 34.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다)는 다양한 소재들을 동원하여 고향의 모습을 환기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시이다. 이때 ‘서울로 가는 순이 누나’라는 고향의 특정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순이 누나 역시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 중의 하나이다. ‘순이 누나’ 이후에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고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기에, 시상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참새 떼 내려앉는’, ‘초가지붕’, ‘토란 잎’, ‘뒤란’, ‘추수 끝난 빈 들판’, ‘짚벼늘’ 등의 소재를 통해 고향 마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② ‘웁자히 내려앉는’, ‘쿵쿵 울리며 가는’ 등에 청각적 이미지, ‘노오란 초가을’, ‘흰 옷자락’, ‘파르라한 웃고름’ 등에 시각적 이미지, ‘서늘하고 뜨거운 기적 소리’에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어 있다. ④ 시의 마지막 부분에 수레바퀴 자국을 뒤로 하고 고향 마을을 떠나던 때의 일을 그리고 있다. ⑤ ‘내 마음의 마음의 고향은 ~ 끝났다’를 통해 화자의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앞에서 형상화해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부각하는 것이다.

### 35. 추론적 사고(시구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는 늘 변함없이 폭포의 '물결'이 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지는 시행에서 이를 다시 '실 사이 없이'로 표현했으며, 이는 고매한 정신으로서의 폭포가 항상성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낸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나타와 안정'은 폭포가 뒤집어 놓은 대상이다. 화자는 이 시에서 폭포를 긍정적 의미를 지닌,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존재로 그리고 있다. 그런 고매한 정신인 폭포가 뒤집어 놓은 '나타와 안정'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와 연관되며, 화자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 '빈들'은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장소로,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고요 적막한 뒤란'은 화자가 회상하는 여름날의 고향집의 한 장면으로, 화자에게는 그리움의 장소이다. ㉤ '수레바퀴 자국'은 화자가 고향 마을 떠나던 때의 상황으로, 그 자국을 뒤로 하고 화자는 고향을 떠나게 된다. 따라서 화자에게 '수레바퀴 자국'은 고향 상실감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36-38] 언어, '용언의 어미에 대한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용언의 문법적 기능이 용언의 어미에 의해 나타난다는 내용을 제시하면서 용언의 어미가 지닌 속성을 살펴보고 있는 글이다. 특히 어미의 특성을 조사나 접미사의 특성과 대비함으로써 그 속성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용언의 어미는 홀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는 조사와 공통적이지만 대상의 앞에 오는 선행 요소가 독립적인가 아닌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 어미와 접미사는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의 여부와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주제]** 용언의 어미가 지닌 문법적 특성

### 36. 사실적 사고(설명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용언의 어미를 중심 논의 대상으로 삼아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자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 조사와 접미사를 활용하고 있다. 즉 중심 논의 대상인 어미와 다른 대상인 조사, 접미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러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② 어려운 개념들을 익숙한 개념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없다. 용언의 어미를 조사와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접미사와 비교하면서 병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전문가의 견해가 인용된 부분은 없다. ④ 대상에 대한 이견이 대립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없다.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37. 추론적 사고(숨겨진 내용의 추리)

**정답해설** :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 어미, 조사, 접미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면, 선택지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어미와 조사는 둘 다 홀로 쓰일 수 없다. 하지만 어미는 항상 어간과 함께 쓰이므로 선행 요소인 어간 또한 자립할 수 없음에 비해, 조사와 함께 쓰이는 선행 요소는 독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어미가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용언은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어간과 어미는 둘 다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어간+어미’의 형태로 문장 성분이 된다. ③ 어미는 반드시 어간과 함께 쓰이므로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품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④ 용언은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한 기본형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⑤ 어미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 반면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 38. 추론적 사고(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해설** : ‘마음이 놓이네.’라고 할 때의 ‘놓이네’는 동사 어간 ‘놓-’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놓다’와 ‘놓이다’는 모두 동사로 품사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나가는’이라는 용언은 ‘선우’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만났어’는 ‘만나-’, ‘-았-’, ‘-어’가 결합한 형태인데, 이들은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③ ‘병원에 가는 길’은 ‘병원 가는 길’로 써도 의미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조사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의 예가 될 수 있다. ⑤ ‘걱정하고’라는 용언은 ‘걱정하-’라는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한 형태인데, ‘걱정하-’라는 어간에 피동 접미사 ‘-이-’를 결합시킬 수는 없다. 이를 통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에 제한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9-42] 사회, ‘공적 연금의 실시 목적과 운영 방식’

**지문해설** : 이 글은 국가가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이유와 그 운영 방식과 관련된 상반된 두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공적 연금 제도는 사적 연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공공 부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공적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과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제도를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인정하고,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기금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제도의 소득 재분배는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는 것이고, 기금을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신탁 기금으로 보는 입장이다.

**[주제]** 공적 연금 제도의 실시 목적과 운영 방식의 쟁점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39.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사적 연금이나 공공 부조 제도와 함께 공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으므로, 공적 연금 제도를 시행한 뒤에 공공 부조를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연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적 연금, 공공 부조, 공적 연금 제도 등을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공적 연금 제도와 사적 연금은 병행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2문단에서 공공 부조가 야기하는 도덕적 해이가 납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3문단에서 공적 연금 제도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40. 추론적 사고(입장의 비교 평가)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기금을 국민 전체가 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한 투자 자금으로 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안정된 금융 시장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③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은 연금 기금을 신탁 기금으로 규정한 법률을 바꾸는 데 찬성한다. ④ '경제적 성과를 중시하는 입장'은 일부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소득 재분배를 비판적으로 본다. ⑤ 보험료를 낼 소득자 집단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 41. 추론적 사고(자료 해석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의 (가)와 (나)는 공적 연금 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불가피하게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이고, (나)는 고의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이다. 공적 연금 제도에서 소득이 있는 국민들을 강제 가입시키는 것은 사적 연금에서와 같은 역선택의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공적 연금을 강제로 가입시키는 제도를 완화하게 되면 (나)와 같이 고소득자들이 연금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역선택의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공적 연금을 일자리 창출에 연계된 사회경제 분야에 투자하게 되면 고용 불안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가 체납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② (나)는 고소득자들이 고의로 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이므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다. ③ (나)는 고소득자가 연금 보험료 납부를 고의로 기피하는 것이므로 공적 연금에서도 사적 연금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 (나)와 같은 현상이 심화되면 납입되는 보험료 총액에 비해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이 커질 수 있어 공적 연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 42. 어휘(사전적 의미)

정답해설 : ‘도모’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움’의 의미이다. ‘어떤 시기나 기회가 닥쳐옴’은 ‘도래(到來)’의 사전적 의미이다. 정답 ①

## [43-45] 기술, ‘음성 인식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컴퓨터가 음성을 인식하는 방법과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의 말이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의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한 특징 벡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실행된다. 입력 패턴은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에 대응되도록 조합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이 보여 주는 패턴 거리의 최솟값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단어로 추출하게 된다.

[주제] 음성 인식 기술의 실행 방법

## 43.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특징 벡터는 음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정보들을 이용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특성을 보이는 정보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음성 인식 기술은 사람의 말이 음소들의 시간적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음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입력된 신호에서 잡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입력 패턴은 음소 추정 구간에서 추출된 특징 벡터를 구간 순서대로 배열하여 생성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기준 패턴과 입력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의 최솟값을 구하여 그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입력된 음성 신호에 대해 인식된 단어로 출력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44. 추론적 사고(새로운 정보의 생성)

정답해설 : 4문단 및 5문단에서 기준 패턴의 음소가 2개라면 3개의 단위 구간을 조합하여 2개의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을 설정하고, 이로부터 입력 패턴을 생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입력 패턴을 생성하기 위한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은 기준 패턴의 음소에 대응될 수 있는 개수로 만들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조합되는 음소 추정 구간 배열은 2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3개이면 그에 맞게 입력 패턴도 ‘음소 추정 구간’을 3개로 맞추게 되고, 특징 벡터는 음소 추정 구간마다 1개씩 추출하게 된다. ② 입력된 음성 신호가 세 개의 단위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준 패턴의 음소 수가 3개 이므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의 음소는 일대일 대응을 하게 된다. 따라서, 패턴 거리는 1개가 된다. ④ 입력 패턴은 기준 패턴의 음소의 개수에 대응되도록 생성된다. 기준 패턴의 음소 개수가 2개이면  $[s_1 \ s_2 \sim s_3]$ ,  $[s_1 \sim s_2 \ s_3]$ 의 두 음소 추정 구간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배열에서 입력 패턴을 생성하게 되므로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 개수 또한 2개가 된다. ⑤ 5문단에서 기준 패턴의 음소가 3개보다 크면 두 패턴을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 45. 추론적 사고(이유의 추리)

**정답해설** : 6문단에서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을 짧게 하여 그 개수를 늘리면 음소 추정 구간을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오류를 줄일 수 있지만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길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생성 가능한 입력 패턴과 기준 패턴 사이의 패턴 거리를 모두 구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단위 구간의 시간 간격의 감소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 [46-50] 갈래 복합

#### (가) 정철, '성산별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서하당과 식영정을 중심으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성산(전남 담양군 창평에 있는 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예찬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서사-본사-결사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서사'에서는 김성원의 풍류와 식영정의 자연경관을 예찬했고, '본사'는 성산의 아름다움을 계절별로 노래한 것이다. '결사(結詞)'에서는 독서를 하며 지내는 산중생활과 뜬구름 같은 세상에 술과 거문고를 즐긴다며 진선(眞仙) 같은 생활의 즐거움을 읊었다. 표현 면에서는 한자어구를 많이 사용하고 고사의 인용이 많다.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결사로 전원생활의 멋과 풍류를 그리고 있다.

**[주제]** 성산의 풍경 예찬 / 자연을 벗하며 한가롭게 사는 풍류적 삶

#### (나)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獨自往遊戲有五詠)'

**작품해설** : 이 시는 봄이 되면 남산에 놀러가기로 약속한 상황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봄나들이를 거부하는 친구들을 두고 혼자 남산에 다녀오게 된 일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시이다. 특이한 점은 화자와 다른 청자들의 대화 형식으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 1·3·5연은 화자가 노래하는 반면, 나머지 연들은 화자의 말을 듣고 있는 청자가 다시 화자가 되어 대답을 하고 있는 형식이다. 화자는 친구들에게 봄나들이를 권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과거 급제를 위한 준비나 고단함 등을 이유로 화자의 제안을 거부한다. 그러자 화자는 친구들이야 가거나 말거나 혼자라도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와 다른 인물들과의 의견 차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주제]** 산수 유람을 권유하는 대화와 혼자라도 유람을 하겠다는 다짐

#### (다) 이양하, '신록예찬'

**작품해설** : 이 글은 봄을 맞아 신록이 우거진 계절에 자연을 즐기면서 인간의 삶에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대해 생각해 본 글이다. 출발 사이에 ‘나의 자리’라고 명명된 그루터기에 앉아 자연에 몰입하는 글쓴이는 사람을 떠나 와 조용한 자리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신록의 계절을 맞은 이때는 자연의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대비된 인간의 욕망과 비루함을 떠올리며 자연의 순수함을 닮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신록의 아름다움 예찬과 인간의 욕망 비판

### 46. 추론적 사고(작품들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고불과 손, 주인을 등장시켜 자연을 벗하며 사는 한가롭고 소박한 삶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이와 대비하여 변화무쌍한 인심과 세상사의 험난함을 말하고 있다. 세속의 욕망을 벗어나 한가로운 자연에서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다)에서는 신록으로 싱그럽고 반짝이는 자연을 감상하면서 지위와 명예, 이익 등의 세속적 욕망으로 물든 사람들의 일을 떠올린다. 자연의 순수함과 무욕과 대비된 인간 삶의 욕망을 대비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책을 읽으면서 성현과 호걸의 삶과 인생의 무상함을 떠올리고 변화 많은 세속을 떠나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앞부분에 경치를 먼저 노래하고 그 후에 정서를 노래하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 (나)는 화자가 교체되는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며, 각 수에서 화자들이 산수 유람과 관련한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기에 선경후정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두 작품 모두에 화자의 애상적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의 표면에 드러난 시간적 배경은 없으며, 삶의 무상함이 아니라 산수를 구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다. (다)의 시간적 배경은 봄으로, 화자는 신록의 계절을 맞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이기에 무상감과 거리가 멀다. ④ (가)~(다) 모두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⑤ 과거의 기대와 다른 현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나)이다. (나)의 제1수에서 친구들끼리 과거에 남산에 구경 가기로 약속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의 전개에 따라 이런 기대와 약속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화자는 아쉬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혼자라도 구경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다.

### 47. 추론적 사고(화자의 정서와 태도의 파악)

**정답해설 :** ‘손’과 ‘주인’이 어울려 거문고를 타며 풍입송을 즐기는 모습은 자연을 즐기며 한가로운 풍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 것이기에, 화자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소외감이 심화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한기’를 보며 역사적 인물들을 떠올려 생각해 보고 있다. ② 화자는 역사 속의 인물을 떠올리며 시대의 운이 흥했다 망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있다. 즉, 역사의 흥망에서 세상사의 무상함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③ 고불이 박소리를 핑계로 세상에 나가지 않은 행동을 화자는 기개가 높은 품행으로 여기고 있

##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

다. ⑤ 손은 이 골짜기의 신선이 바로 주인인가 여긴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주인의 자연을 즐기는 풍류적 삶이 신선의 삶과도 같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손이 주인의 삶을 흠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8. 추론적 사고(시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세사’는 세상일을 말하는 것으로, 전개되어 오던 내용을 통해 추리하면 고불이 거부했던 세속적 삶, 세속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그러한 세속의 일이 구름처럼 매우 빨리 변하여 예측하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중시 급제’는 과거 급제를 말하는 것으로, 당대 선비들의 입신양명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산수 유람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세사’와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중시 급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남산’은 화자가 봄나들이를 가고자 하는 공간으로 자연 친화의 공간이다. ③ ‘승유편’은 자연을 즐기는 일을 기록한 것이므로, ‘세사’와는 오히려 대비된다. ④ ‘창’은 몸이 고단하여 편안한 집에서 쉴 것이라 말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동원한 소재이다. ⑤ ‘양신 미경’은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를 뜻하는 것으로, ‘세사’와 대비되는 자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49.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작품 창작 배경과 시상 전개の特徴을 설명한 글이다. 제3수의 종장에는 복건 망혜의 소박한 차림으로 자연을 즐기다 돌아와 승유편을 지어 후세에 남기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므로,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의지적 자세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 관용어구가 사용되지도 않았다. 제4수의 초장은 벗이 함께 가든 아니든 남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은 봄나들이를 갈 것을 말하는 부분으로, 역시 엄숙한 분위기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다)의 시상이 서로 다른 인물의 대화로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제1수와 제3수에서는 산수 유람의 약속을 지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화자가 나타나며, 이에 대해 제2수에서는 과거 급제를 이유로, 제4수에서는 고단함을 이유로 산수 유람의 청을 거절하는 친구들이 나타난다. ③ 제1수에서 화자는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찌리’라고 말하며 산수 유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제5수에서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랴’를 통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⑤ 제4수의 종장과 종장은 몸이 고단하여 산수 유람을 거절하고 있는 친구가 편안한 집에서 자식들의 재롱을 즐기며 지내는 것이 더 좋음을 말하는 부분이다. 방의 모습, 자식들의 재롱을 즐기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50. 비판적 사고(어구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 및 정서의 파악)

**정답해설 :** 글쓴이는 신록이 황홀함과 기쁨을 준다고 말한 것이지, 자신이 고고하다고

<b>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정답 및 해설 (홀수형)</b>
--

하지 않았다. ‘고고함’은 세속을 떠난 선골의 자세를 말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 ‘신록’이 고고한 속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또한 ‘나의 자리’는 솔밭 사이의 소나무 그루터기로,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명명해 주었다는 진술로 볼 때 접근하기 어려운 초월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홀로 와서 자연을 즐기는 것이 자신에게 특권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③ ‘기쁨의 노래’는 신록이 가득 한 계절에 글쓴이가 자연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비유한 것이다. ④ 2문단에서 글쓴이는 ‘사람 사이에 살고’라고 말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라고 말하고 있다. ⑤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볼 때, 글쓴이가 자연과 동화된 삶을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